

배우고 가르칠 수 있어 '행복'

[다도 포교사 김미려 원장]

한 겨울,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신 기분이다. 맑은 컵 속 수행자의 형형한 눈빛이 담긴 녹차. 2월 5일, 서울 봉은사 다도반 수료식에서 만난 김미려(58) 원장(다례랑 다도회)에게서는 녹차의 향취가 은은하게 배어 나왔다.

남양주 봉선사와 서울 봉은사의 다도반을 맡아 지도하고 있는 김 원장은 스스로를 '다도 포교사'라 지칭한다. 사찰 다도반 두 곳을 비롯해 9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다례랑다도회, 인터넷연말호텔 직원과 중국자 전문점 전채향의 티 소믈리에를 대상으로 한 강의까지. 그의 일과를 들여다보면 차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다도 포교사'란 호칭에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진다.

한국차인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는 그이지만, 차와 인연을 맺은 사연은 평범하기 그지없다. 80년대 초,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이 '잠이 많아 걱정'이라고 고민을 털어 놓자 단민 선생님이 "차를 마셔보라"고 권했다.

차라고 해봐야 국산 티백 녹차 밖에 모르던 시절, 김 원장은 '차'라는 새로운 세계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할머니를 따라 갔던 절에서 한두 잔씩 얻어 마시던 그 '맛없는 물'이 그의 인생 2막을 열게 해 준 것이다. "당시 궁중요리전문가 故 황혜성 선생님께서 요리를 배우며 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홍차와 녹차가 같은 차였으므로 만든 것이라는 것도 그때서야 알았을 정도로 차에 대해서는 무지했죠. 이후 화정다례연구원 신순화 원장님께 차를 배워 자그만 차회까지 열게 됐어요."

호기심과 취미로 시작했던 차 생활은 그에게 '차 문화 포교'라는 사명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차 문화 전파를 위해 1990년 서울 압구정동에 문을 연 150여 평 규모의 전통차

집 '다례랑'은 국내 차인이라면 한 번쯤 들러야 하는 차계의 사랑방이 됐다. 차와 다구를 파는 것은 물론 차를 처음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다도교실도 운영했다.

"그때만 해도 아직 차가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손님 한 분 한 분마다 차의 종류부터 다기 사용법까지 전부 알려드려야 했어요. 그래도 '차를 알려야 한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힘든 줄도 몰랐어요."

하루 종일 손님에게 말을 해야 했던 탓에 성대 결절 수술까지 했던 김 원장은 2001년에는 서울 북촌에 '다담선'이라는 차집을 냈다. 다

봉은사 다도반 김남희(34)씨는 이런 김 원장을 "진정한 외유내강"이라고 평한다. 평소 얼굴에 웃음 띠날 일이 없는 그지만, 다도 강의를 할 때면 그 누구보다 엄격하기 때문이다. 사범 과정을 수료하기 전까지는 무명웃만 입도록 하고 선후배 관계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훈습(薰習)이라고 하죠. 차인들에게는 '몇 년 동안' '어떤 차를' 마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을 마셔도 '어떤 마음으로 마시는지'가 남을 뿐이지요. 저를 비롯한 차인들 모두 바깥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차의 향취가 서서히 묻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의 정신이 아닐까요?"

2005년부터 봉은사와 봉선사에서 다도반 강의를 맡은 것도 이러한 '차의 정신'을 알리려써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뜻에서다.

"차회를 하며 이웃 종교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차를 마시며 저에게 불교에 대해 물어보곤 하시는데, 제대로 대답을 하기 어렵다면 곤란하겠지요. 그럴 때 마다 제 자신이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김 원장은 7살 손녀의 재물을 보며 여유를 즐기는 대신, 포교사 고시 시험문제집을 붙잡고 있다. 내년에 포교사 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일주일엔 네 차례 사찰 다도반을 지도하고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강좌와 국어고전문화원(원장 윤경혜)의 차고전연구반, 불교전통문화원(원장 선혜)의 점다례법, 이시미문화원의 <논어> 강의까지 들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김 원장. '배우고 가르칠 수 있어' 행복하다는 김 원장에게서 배어나는 차의 향기는 끝없는 자기 개발과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된다.

글=여수영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김미려 원장은 "차인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차를 마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사진 맨 위) 2월 5일 서울 봉은사 다도반 중급 수료식에서 수료장을 전달하는 김 원장. 제자들에게는 엄한 스승이지만, 평소엔 늘 웃음을 잃지 않는다. 봉은사 다도반의 불수선차 시연모습(사진 맨 아래)

대원문재현선사/역저



전장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역겹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禪 법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선가귀감
서울 법회가 3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광주선원 ☎ 062)944-4088 3월 18일 선문염송
부산선원 ☎ 051)545-2460 3월 25일 반야심경

-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 바로보인 무문관
- * 바로보인 벽암록
- * 바로보인 천부경
- * 바로보인 금강경
- * 바로보인 신심명
-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 바로보인 증도가
- * 바로보인 선가귀감
- * 바로보인 반야심경
-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0권
- * 영원한 현실
-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 세월을 복재로 세상을 복삼아
-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첫눈 희다

